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말씀묵상 Quiet Time 웨비나

한달에 한번, 줌으로 만나는 QT 웨비나 시리즈 안내  
\*목요일(60분) 오후 8시(동부), 7시(중부), 5시(서부), 2시(하와이)  
\*이번주 9/15(목) 오후 8시/ 배연택목사/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 열린도서관 신간안내

남플 열린 도서관 9월 신간안내 (박스광고 참조)  
\*신간도서- H마트에서 울다(미셀자우너) 마이너 필링스(캐시박흥)  
불편한 편의점2(김호연) 여행자(자정) 하얼빈(김훈)  
추천도서나 구매를 원하는 도서가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연숙 권사 786-253-3226

• 10차 추수감사절 맞이 40일 작정 새벽부흥성회

<추수감사절 맞이 40일 작정 새벽부흥성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제10차를 맞이하는 이번 특별성회를 위해 통역(김학섭 목사)도 제공할 예정이오니, 남플의 유스 이상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주일포함 10일 이상 참가자에게 기념사진과 기념품, 40일 개근자에게 특별 선물이 수여됩니다.

\*주제 /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119:50)  
\*강사 / 이철구 목사  
\*기간 / 10월11일(화)-11월19일(토)  
\*시간 / 월-토 새벽 6시 \*주일은 1,2부 예배 참석으로 대신.

• 교우&목회자동정

[장례] 9월7일(수) 오전, 정선월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족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휴가] 9월12일-28일, 담임목사님 가정 휴가차 고국을 방문합니다. 이 기간 주일 예배 설교는 윤성민 전도사님(9/18)과 이희문 목사님(9/25)께서 담당하십니다.

교육부 소식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사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Youth/EM 광고

1. Small Group (Thursday) 7:30 pm at Pastor Julius's Home.  
2. Youth Group FNL (Friday) meeting at 7:00pm at church  
3. Feed South Florida: Every Saturday at 8:00 am to 10:30 am  
Volunteer hours will be offered to youth students. 문의: Pastor Julius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성서강해(Wednesday Bible Stud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9:00 a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일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수요제자학교 / 수요일 4:00 pm

섬기는 사람들

- EM, Youth/ 안준영 전도사
- 유아유치부/ 윤성민 전도사, 유초등부/ Ms. Carmen Chang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심성애, 반주-윤미아, 2부 플룻-노지현
- 경배와 찬양/ 리더-유철우, 키보드-김선영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김동규 유철우 안현정
- 방송.미디어/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 교회관리/ 전정환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14,381.00

일반헌금 \$9,961.00	십일조: \$6,531.00 감 사: \$1,240.00	주 일: \$990.00 기 타: \$1,200.00
건축헌금 \$500.00	약 정: \$500.00	
선교헌금 \$3,920.00	속 회: \$340.00	중남미: \$3,58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2022년도 표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19:26)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남부 플로리다

한인연합감리교회

Korean UMC of South Florida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mcosf.org

< 성령강림후 열네번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2부(10:30am)

-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 ▲ 경배찬송 Opening Hymn / 29장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 60번
- ▲ 영광송 Gloria / 3장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같이 찬송 Hymn /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 기도 Prayer / 진애주 권사
- 성경봉독 Scripture/ 요한복음 15:9-12
-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내 영혼아 주를 찬미하라 -
- 교회소식 Announcement
-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 ▲ 예배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 ▲ 경배와 찬양 / 다같이 Worship & Praise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같이 찬송 Hymn /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 기도 / 이해영 권사 Prayer
- 성경봉독 Scripture / 요한복음(Jn) 15:9-12
- 찬양 Choir/ 할렐루야 찬양대  
- 거룩한 영광의 이름 -
- 교회소식 Announcement
-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설교Sermon / 이철구 목사

<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

- ▲ 파송찬송 Closing Hymn / 33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 ▲ 축도 Benediction / 이철구 목사

- ▲ 파송찬송 Closing Hymn / 33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 ▲ 축도 Benediction / 이철구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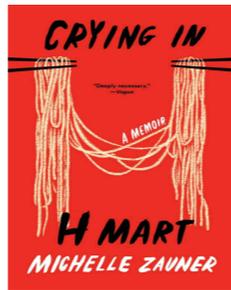
2022년 9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9월 11일	1부	온유교구	담당자	진애주권사	온유교구
	2부			이해영권사	
다음주 9월 18일	1부	온유교구	담당자	노효영권사	총성교구
	2부			유영재장로	

금주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울조리나이다 (시 1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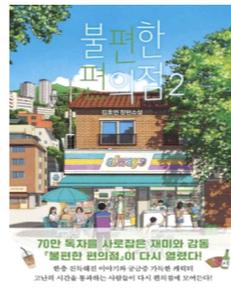
[ 열린도서관 신간 안내 ]



- H마트에서 울다 -  
미셸자우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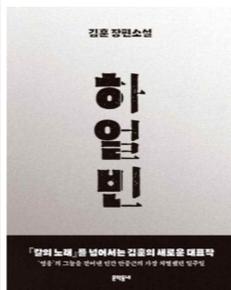
- 마이너 필링스 -  
캐시박홍 지음



- 불편한 편의점2 -  
김호연 지음



- 역행자 -  
자청 지음



- 하일빈 -  
김훈 지음

금주 애찬 섬김

금주(9월 11일)	다음주(9월 18일)
박소임권사	총성교구
범사감사	
온유교구	

미국은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1620년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피하여 영국을 떠난 청교도 중에는 '메이 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온 이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매스터 호'를 타고 남미로 간 이들도 있었는데 그 선택의 결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는 청교도들이 북미와 남미로 나눠진 동기에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북미로 온 이들은 God을 찾아 간 것과 달리 남미로 간 이들은 Gold를 찾아 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미와 달리 남미의 청교도들은 Gold도 God도 다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예배를 중심에 두었던 북미 청교도들과 물질 중심에 두었던 남미 청교도들의 선택의 결과는 이렇게 천양지차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성공이 실제로 인생의 성공과 연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경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22:4)

주일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는 그 날 자신이 받을 은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함은 물론이고 재물과 영광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밤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밤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신16:1).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때는 밤중이었습니다. 그 밤에 그들에게 새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2백만 명이 밤 사이에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밤도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밤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밤은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밤에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양을 잡아 그 피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밤에 애굽에서 나오기로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 그 밤을 기억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16:2,3).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올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주일예배에 참석하였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LA 지역 목사님들은 주일에 날이 맑으면 염려한다는데, 예배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교인 상당수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나가서 땅을 파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예배는 옵션이지 필수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임의 근원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겠습니까? 예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시지만, 예배를 옵션으로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1:10)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총성1속 (평양과기대-고동훈)	총성2속 (도미니카- 피터정)	총성3속 (아틀란타- 다니엘양)
믿음1속 (중국- 장은광)	믿음2속 (쿠바- 김기헌)	믿음3속 (카자스탄- 양재성)
믿음4속 (이라크- 손기주)	온유1속 (니카라과- 김향자)	온유2속 (말레이시아-김시은)
온유3속 (아리조나- 이영호)	소망1속 (니카라과- 김규현)	소망2속 (볼리비아- 김영모)
소망3속 (키르기스스탄-임다윗)	사랑1속 (태국- 이우헌)	사랑2속 (터키- 송정렬)
은혜1속 (하이티2- 정 광)	은혜2속 (하이티- 김승돈)	